

친환경에너지 육성·보급 탄력

진안군,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

장수군,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장수군은 지난 7월~8월 한국에너지공단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총 사업비 51억원 가운데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총 584개소로 장수군 데드우드 융복합센터(지열 40RT 및 태양광 30kw), 뜬봉샘태공원(30kw), 도로관리사무소(태양광 3kw), 장수LPG배관공급소(태양광 15kw), 누리파크(태양광 75kw) 등 공공건물 12개시설과 일반주택 태양광(3kw) 492개소,

일반주택 지열(17.5kw) 57개소, 주택태양열(6㎡) 23개소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실천할 예정이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1년도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인 (유)우경에너지 등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추진으로 청정지역에 걸맞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정에 주무관,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인정 받아

진안군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김정에 주무관이 '꼭꼭 숨은 복지 사각지대 찾아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김정에 주무관은 201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입사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왔다. 특히 2018년 하반기에 주천면으로 승급 발령 받아 2년6개월 동안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가구 특성별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주천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가 2018년 215건, 2019년 498건, 2020년 772건, 2021년 상반기 136건으로 위기가정 발굴사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김정에 주무관의 꼼꼼하고 세밀한 모니터링으로 제도권밖에 꼭꼭 숨어있던 위기가정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위기가정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덕분이다.

이처럼 주천면 위기가정의 기초환경 및 기본생활 전반에 따른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주는 사례를 높이 평가해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향후 행정기관 주도였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 등을 융합해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마을 단위 가문조사 등 협업을 통하여 치매 어르신 및 미관정 지적장애 가구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확대하고 복지급여가 증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산물 홍보 판매 온라인 마케팅 교육 호응

무주군이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장에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다양한 SNS 활용한 마케팅 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마케팅 전문가 박형이 소통과 미래 대표가 강사로 초빙됐다. 이번 교육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의 이해 및 실습(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교육 과정을 밟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지난 24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 30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용문 의장은 24일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도열병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벼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도시 병충해에 강한 신 품종 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후에 예정된 국가사적 지정 현지심사를 통해 침령산성이 반드시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의회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1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김준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영세·고령농에 국한된 벼 공동육목 지원사업을 대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군에 제안했다.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 19 대응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당초 예산 보다 235억원이 증액된 총 4,678억원(일반회계 4,247억, 특별회계 431억)에 대해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확정

진안군은 지난 24일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사를 마치고 24일 열린 진안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부분별 수상자는 ▲대장 송상모(76), ▲문화장 이승철(57), ▲공익장 박명석(65), ▲산업근로장 손준엽(59), ▲애향장 안복현(80), ▲효행장 신정미(71), ▲체육장 박주홍(56) 등 7개 분야 7명이다.

대장에 선정된 송상모씨는 34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용담댐 수몰민 보상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퇴직 이후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여 17년 동안 변함없는 봉사활동을 펼쳐 진안군 사회복지 발

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화장에 선정된 이승철씨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승관장으로 1992년 중평국보존회를 결성하고 30년 넘게 중평국에 몸담으면서 관내 초중고학생과 지역문화단체의 교육을 통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익장에 선정된 박명석씨는 제6대, 제7대 군의원과 제7대 진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농업인단체와 농업인후계자 양성에 앞장서면서 인삼재배 기술 보급 등을 전파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손준엽씨는 유기농벨리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으며 계약재배 확대와 판로개척 등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애향장에 선정된 안복현씨는 정천면 출신으로 지역민의 대소사를 두루 돌봐 두터운 신망을 얻고 수혜로 유실된 땅의 복원 등 공적에 적극 참여하는 등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공적을 인정받았다.

효행장에 선정된 신정미씨는 2006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진안군으로 귀농하여 본인이나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겪고 있는 시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에게도 헌신적인 내조와 이웃 어른들에게까지 효행을 베풀 공적을 인정받았다.

체육장에 선정된 박주홍씨는 16년간 진안군체육회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전국 규모 탁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군민의 장 시상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0월 12일 소규모로 열리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독감 예방접종 실시

무주군은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위탁의료기관 등 25곳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만 65세 이상)과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그리고 만14세~64세까지의 유·무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로 구분해 진행한다.

먼저 어르신 접종은 만 75세 이상인 10월 12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18일부터, 만 65~69세는 10월 2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임신부 접

은 9월 14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된다.

생후 6개월~만 13세까지의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자가 9월 14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 대상자는 10월 1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위탁의료기관 3곳과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만 14세~64세까지의 유·무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음식점 생활방역 비말차단 칸막이 배부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생활방역 비말차단 칸막이를 지원한다고 지난 24

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내 밀집도가 높은 면적 30㎡이하 음식점 30곳으로, 총 100개의 비말차단 칸막이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음식점 내 근거리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비말차단 칸막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특허기술원료 생산단지 구축사업 선정

진안군은 농촌진흥청·농업기술진흥재단과 함께 추진 예정인 '2022년 특허기술원료 생산단지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원(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목 중심으로 특허를 활용한 농식품 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제 시범사업이다.

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흑삼제조 가공방법'을 기술이전 받을 예정이 다.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흑삼

제조 방법은 제조시간은 기존 18일에서 8일로 단축되는 높은 경제성과 함께 성분 분석결과 인삼류에 있는 기능성분이 높아 효능기 건강 개선 및 암세포 증식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흑삼제조 가공방법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뤄질 경우 진안 인삼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고, 소비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 중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흑삼 제조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